

News

주요은행 5월 연체율 일제히 상승...코로나19 영향권

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에 비해 0.02%포인트(p)씩 상승...0.23~0.35%로 집계...3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코로나19의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금융규제 유연화 내달 완료...채권시장 이달 5조원 공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달까지 모두 완료...은행권 LCR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을 하향... 또 채권시장에는 이달 채권시장 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조원을 공급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되나...정부, 잔여 지분 매각 논의

뉴스1

정부가 오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를 논의...지나달 말 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최근 1만원대까지 오르면서 공적자금 완전 회수에 대한 기대감도 금융당국 관계자, "당장 팔지, 안 팔지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까지 매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만큼 논의하려는 것"

라임펀드 보상 속도내나...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

머니S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오는 8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 출범에 따라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임 사태의 피해자 구제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

삼성화재, 대형GA 수수료 인상...수수료 경쟁 또 불붙나

머니투데이

삼성화재는 최근 국내 GA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와 수수료 환수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총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신설 지에이코리아 설계사가 삼성화재의 주요 장기 보험과 간편 보험을 팔면 타사 평균 대비 초회 수수료 기준 73~91%포인트p, 총 수수료 기준 132~161%p를 많이

DB손해보험, 美 뉴욕에 자산운용 법인 세운다

아시아경제

DB손보는 최근 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에서 운영 중인 주주사무소를 법인 자회사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에 해외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 DB손보는 뉴욕 법인을 통해 자산운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투자업계의 동향을 파악,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

HDC현산-채권단, 아시아나 인수 조건 놓고 기싸움 벌이나

연합뉴스

HDC,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재협의하기 위해 인수계약 종결기간 연장을 채권단에 요구...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 지난해 계약 맺으면서 이달 27일까지 거래 끝내기로 약속...다만 해외 기업결합 승인 심사 등 다양한 선결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 늦출 수

'토스'서 잇단 금융사고...핀테크 보안 도마에

매일경제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고객 모르게 1000만원가량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핀테크 업체의 안전성이 도마 현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재 경찰과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중...이번 사태를 계기로 핀테크 업체 보안과 비대면 인증의 안전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